

**新 수호이 37 최초 공개
탁월한 기동성 자랑...
전진익이 특색**

러시아 수호이(Sokhoi)설계국의 S-37 Berkut 전투기의 모습이 최초로 공개됐다. 공개된 사진에 의하면 S-37은 Su-27 Flanker 전투기의 크기와 비슷하며 2개의 엔진을 장착했다. 아울러 높은 받음각에서 민첩성을 배가시키기 위해 전진익을 채용했다.

러시아 언론은 동 전투기는 전장 22.6m, 전폭 16.7m이며 이륙중량은 24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엔진은 Su-27에 장착된 Lyulka/Saturn AL-31F나 MiG-31에 장착된 바 있는 Aviadvigatel D-30F6 중 어느 것을 선택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S-37는 향후 추력제어 노즐을 장착할 것으로 보인다.

동 기종은 큰 귀날개(Canard)가 전진익 바로 앞 공기흡입구

주변에 장착됐다. 초기 모델과는 달리 신형기의 수직꼬리날개는 바깥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다. 중앙동체부분에는 보조문이 2개가 달려있는데 정확한 용도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수호이사는 동 기종을 러시아 공군 및 해군항공대를 위해 지난 10월 말 시범비행을 가진바 있는데 공군 장교가 불참한 것으로 보아 러시아 공군으로 부터의 S-37 기종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수호이사는 기종은 마포(MAPO)사의 Article1.42기종을 대체할 러시아 공군의 제5세대 전투기 선정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진익 설계는 기술개발용으로 설계된 것이므로 실전사용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동 프로젝트는 수호이사의 Su-22 및 Su-25를 대체할 초음속 다목적전투기 개발로 추진되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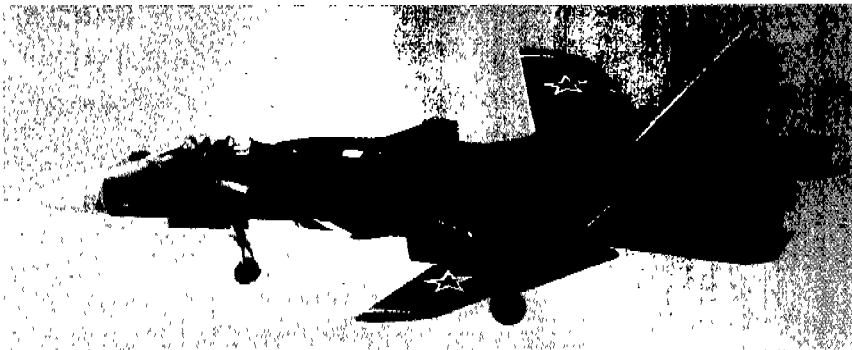
**무인 전투기,
2010년경 실전투입
美 국방고등연구소 전망**

무인 전투기(UCAV)가 앞으로 약 12년 후면 국가방위 및 고난위 임무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미국의 국방고등연구소(DARPA)가 최근 전망했다.

오는 2009년-2010년에 등장하게 될 무인 전투기는 효용성의 증가와 유인 및 무인전투기의 공동사용을 통한 전투기 손실의 감소로 차세대 전투기의 전체수요를 감소시킬 것으로 DARPA는 내다봤다.

DARPA와 미국 공군은 오는 2001년-2002년 사이에 무인 전투기를 정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DARPA 관계자는 동 무인전투기는 대당 약 7백만달러수준이며 3,200kg~4,500kg의 공중량을 보유, 약 12대의 45kg급 소형 폭탄을 탑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인 전투기는 위험도가 매우 높은 적 지역을 깊숙히 침투, 목표지점에 오랫동안 머물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동 무인 전투기가 이음속으로 비행, 10시간 이상 비행가능한 터보팬 엔진을 장착하



이번에 공개된 신 S-37기종은 전진익을 비롯, 큰 공기흡입구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기 때문이다.

한편, 무인 전투기의 최신 기술은 3가지의 조종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번째는 실전 전투용으로 적기가 100m-35,000m의 사정거리에 들면 지상에 있는 가상조종사가 무인기를 원격조종하게 된다. 이는 위험상황에서 조종사의 탈출하는 시간까지도 전투에 임할수 있어 전투기로서의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두번째로는 정찰용으로 각 임무에 따라 3-5명의 운영자 편성, 운영자마다 1-3대의 무인기를 작동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위성을 통한 조종방법인데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비교적 정확하고 값싼 GPS 수신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

현재 DARPA와 미공군은 무인 항공기 개발에 소요될 1억2천5백만 달러의 자금조달을 위해 협상중이다. DARPA 관계자는 무인 전투기가 오는 2004년에 투입되기는 힘들며 개발 및 시범비행의 단계를 충분히 거친후 오는 2009년-2010년에 실전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英, 토네이도 20년간 실전에 사용키로

영국 공군은 최근 토네이도

(Tornado) GR4기종을 오는 2018년까지 실전에 사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동 기종은 공군의 미래 공격형 항공시스템(Future Offensive Air System)사업 추진과는 다른시기에 신기종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영국공군은 그동안 미래 공격형 항공시스템사업에 따라 오는 2013년-2015년 사이에 토네이도 GR4기종을 퇴역시킬 계획을 수립했으나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2018년까지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일부 업체에서는 동 기종이 2020년까지 실전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BAe)사는 현재 토네이도 GR1기종을 GR4 표준형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수행중인데 오는 2002년이면 모두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국방부는 현재 미래 공격형 항공시스템사업의 세부적 계획인 수립중에 있는데 여기에는 BAe사가 연구중인 전투기를 비롯하여 무인 항공기,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등의 개발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함께 영국 공군의 요구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전체적인 미래 공격형 항공시스템 개발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토네이도의 퇴역연

기는 유럽전투기 개발프로그램에 잠재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체기종으로는 유로파이터2000의 파생형을 비롯 록히드마틴/보잉사의 F-22 파생형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aman, 호주에 H-2 헬기 제안 무장 정찰헬기로

카만 에어로스페이스(Kaman Aerospace)사는 호주 정부가 공격형헬기 보다 다목적 헬기를 원한다면 SH-2G 수퍼 시스프라이트(Super Seasprite)의 무장-정찰버전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주 정부의 관계자는 카만사의 기종이 호주 해군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총중량인 6,100kg이상이 되어야 하고, 주 기어박스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호주는 이번 헬기 조달을 정찰용과 공격용으로 나누어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만사는 지난 10월 이집트에 최초로 대잠초계용으로 SH-2G를 납품한 바 있는데 총구매수는 1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까지 호주는 카만사의 미 해군에서 퇴역한 SH-2F를 개량한 SH-2G 11대를 주문했다.